

■ 특집 :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

미국 다문화주의의 역사적 배경

최재인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I. 서론

미국의 영화감독 마틴 스코세지(Martin Scorsese)는 남북전쟁 시기 뉴욕 빈민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갱스 오브 뉴욕(Gangs of New York)>에서 토박이, 아일랜드계, 중국계,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각각 폭력 집단을 형성해 서로 갈취하고 싸우며 생존을 도모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각 집단은 고유의 개성을 갖고 있으며 권력의 차이도 명확하다. 가장 큰 물리력을 가진 토박이 집단과 이에 도전하는 아일랜드계가 주인공이고, 그 외에 영어를 못하는 중국계, 지치고 힘든 표정의 아프리카계 등 다양한 인종과 민족 집단의 모습이 영화의 배경으로 간간히 등장한다. 미국의 다문화주의란 이 영화에서처럼 한 사회 내의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들이 패권과 자원을 놓고 싸워온 역사와 현실을 이르는 말인가, 그런 역사를 극복하고 좀 더 평화롭고 평등한 공존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이르는 말인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캐나다에서였다. 1965년 캐나다의 ‘이중언어와 이중문화 위원회’가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1971년부터는 캐나다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¹⁾ 미국에서 언론이나 정부가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주요 신문을 검색할 수 있는 넥시스(Nexis)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88년까지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으며, 89년에 33건을 시작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1) <http://www.answers.com/topic/multiculturalism> (검색일: 2009년 11월 14일).

90년에는 100건을 넘었고, 1994년에는 1,500건으로 절정에 달했다. 이후로는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네이션 글레이저(Nathan Glazer)는 아마도 “다문화주의의 현상 자체가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현실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 것이라고 분석했다.²⁾ 이런 추세는 학계도 비슷하여,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보면 1990년 이전에 나온 다문화주의에 관한 학술 논문은 거의 대부분 캐나다와 호주 사례로 한 것이었으며, 미국의 다문화주의를 다룬 학술 논문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였다.³⁾

199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담론이 활발하게 등장했던 것에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주의를 『사회과학사전(Dictionary of Social Sciences)』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한 사회 내에 규범적이고 지배적인 문화 외에 다른 다양한 문화 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집단들이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주려는 것”이라고 한다면, 혹은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주장대로 다문화주의는 사회 내 약자 집단의 존재와 의의를 사회적으로 인정(認定)해 주는 “인정의 정치”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본다면,⁴⁾ 미국 다문화주의의 역사는 그 용어가 회자되기 시작했던 시기보다 좀 더 일찍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은 1609년 영국인들이 버지니아 해변에 도착해 그곳에 살던 원주민 인디언들과 만났을 때부터 수백 년 동안 다인종, 다문화 사회였다. 하지만 20세기 초반 까지 미국은 백인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고수해 왔다. 아프리카계나 원주민(인디언), 아시아계 등 유색인종은 미국 사회 내에 살면서도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소설가 랄프 엘리슨(Ralph Ellison)의 표현을 빌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참정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프리카계의 경우 1867년에, 원주민의 경우 1924년에 시민이

2) Nathan Glazer, *We Are All Multiculturalists Now*, 서종남, 최현미 역,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서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09), p.33.

3) <http://web.ebscohost.com/ehost/search?vid=1&hid=105&sid=c4a8f328-40c2-4cad-a148-996b07f5f1cc%40sessionmgr112> (검색일: 2009년 11월 14일)

4) Charles Taylor,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25.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남부 사회에서 아프리카계는 여러 물리적 사회적 법적 제재로 거의 참정권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색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 때문에 이들은 오랜 동안 미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여겨져 왔다.

다문화주의가 한 사회의 규범 혹은 지향성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사회 혹은 국가의 정체성이 혈연적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데이비드 홀링거(David Hollinger)에 따르면, 혈연적 민족주의는 “진정한 국가란 도구적이거나 우연한 유대가 아니라 근원적인 유대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한 나라의 국민은 혈연적 유대로, 즉 선택이 아니라 출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이런 사고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나찌 독일이라고 할 수 있다.⁵⁾ 그러나 이민자들의 나라인 미국의 역사도 혈연적 민족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남북전쟁 이후 해방된 흑인의 사회적 지위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정계와 언론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었던 것은 “미국은 백인의 나라”라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이런 생각을 가장 노골적이고 극단적으로 표현한 집단은 백인 우월주의 테러집단이었던 KKK 일 것이다. KKK처럼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백인의 나라라는 생각은 20세기 중반까지 백인 사이에서 광범하게 공유되는 통념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사회는 자국의 인종주의와 인종관계를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인종주의 혹은 인종주의자는 시대에 뒤쳐진 것, 히틀러와 같은 자를 일컫는 표현이 되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는 국민에게 미국이 제2차 대전에 참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미국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열정의 문제이지, 인종이나 조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미국이 기초해 있고 미국이 운영되어가는 원리이기도 하다”고 선언했다. 루즈벨트의 이 연설은 인종구별이 남부에서 제도화되어 있던 당시 미국 사회를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쟁 기간 동안 미국 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야 했던 절박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5) David Hollinger, *Postethnic America: Beyond Multiculturalism* (New York: Basic Books, 1995), p.133.

미국 시민의 요건이 인종보다 정신에 있다고 공식 선포한 것은 미국 지도층 내에서 인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특히 제1차 대전 시기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 행정부와 비교된다. 당시 연방정부는 고용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해고하는 등 유색인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고, KKK단을 미화하고 유색인에 대한 혐오감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영화 <국가의 탄생(Birth of a Nation)>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개적으로 관람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인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서서히 시작된 것은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 다문화주의 담론의 동력을 크게 3가지로 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비롯한 유색인과 여성 등 약자 집단의 인정(認定) 투쟁이다. 오래 동안 이방인 혹은 주변인 취급을 받아왔던 이들은 투쟁을 통해 시민권을 인정받았으며, 미국 사회가 이들을 더 이상 공공연하게 억압하거나 멸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둘째는 제2차 대전을 계기로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선도하는 하나의 제국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특히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에 맞서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큰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미국 정부는 내부 유색인 집단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미국 다문화주의의 배경에는 백인 중산층의 사회 경제적 힘과 문화적 구심력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인종과 인종관계에 대한 규범이 변화하고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경쟁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기업가적, 혹은 자본주의적 가치의 구심력이 약화된 적은 없다. 소수인종/민족집단들이 고유의 문화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주류 문화의 그런 구심력을 벗어나기 힘들며, 또 굳이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런 강한 구심력이 있기에 미국 사회는 더욱 자신감을 갖고 다문화주의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은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불안하며 복잡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미국 다문화주의 담론이 놓여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미국에서 다문화주의가 하나의 가치관이자 규범으로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 미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이 가진 함의와 잠재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미국의 다문화주의를 논

하는 글이라면 여러 인종, 여러 민족, 그리고 여성의 경험을 함께 다루어야 하지만, 필자의 능력과 지면의 한계 상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II. 동화 정책과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의 역사는 아무래도 20세기 초 동화정책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동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그리고 동화 정책에 대한 대안의 모색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미국 엘리트의 가장 큰 고민은 188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유럽계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의 전통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1880년대 이래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온 이민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1881년-1890년에는 496만 명, 1891년-1900년에는 371만 명, 1901년-1910년에는 629만 명의 새 이민자들이 미국 땅을 밟았다. 그런데 당시 여론이 문제로 삼은 것은 그 규모보다는 이들이 주로 동유럽과 남유럽 출신이라는 점이었다. 이전에는 영국, 독일, 스칸디나비아 등 서유럽이나 북유럽에서 온 이민자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문화적 배경을 가졌다고 간주되었다. 이에 비해 1880년대 이후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러시아, 아일랜드에서 많이 이주해 왔는데, 주로 가난한 농촌 출신이었고, 가톨릭 등 개신교도가 아닌 이들의 비중도 높았다. 토박이를 대변했던 미국 여론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와 가치관에 쉽게 동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20세기 초 미국 사회가 유럽 이민자들 때문에 형성된 언어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대처했던 방침은 이들의 관습과 문화를 ‘녹이고 용해시켜’ 앵글로-색슨 개신교 중심의 미국 전통 문화에 동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런 지배 문화의 의지는 이민 노동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국화(Americanization)’ 운동으로 등장했다. 이 운동의 주요 목표는 새로 시민이 된 이민자들이 소수민족 집단(보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개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미국 시민이 되게 하는 것, 영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더러운 게토에서 벗어나 위생적이고 세련된 ‘미국적’ 생활 습관을 갖게 하는 것 등이었다.

처음에 ‘미국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동화정책을 옹호했던 이들은 이민

자의 편에 서서 이들의 복지를 도우려는 사회개혁가들이었다. 이들은 북서유럽 출신이 아니면 미국 사회로 동화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인사들에 맞서서, 타고난 자질보다 환경과 사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사회복지관 활동가들은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와 정치 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낳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주거 환경을 비판했다. 사회복지관 활동가들이 이민자의 미국화 정책을 추진했을 때, 이들은 미국화와 이민자들이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제인 애덤스(Jane Adams)가 운영했던 헐 하우스(Hull House)에서는 이민 노동자들이 문화적 자부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⁶⁾

그러나 1914년 제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이민자에 대한 동화정책은 이민자와 외국 문화에 대한 혐오감과 결합해 갔다. 이는 복지관 등에서 미국화운동을 시작했던 사회개혁가들이 경계했던 정서였다. 동화정책이 배타성과 강압적 성격을 갖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이민자의 동화 프로그램에 기업이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기업은 이민자가 미국 문화와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길임을 분명히 인지하게 되었다. 기업이 나서면서 동화 정책은 좀 더 큰 규모로 철저하게 추진되었으며, 이는 이민자들이 좀 더 빠르게 공장과 미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기업의 주된 목적은 이민자를 배려하기 보다는 효율성을 목표로 했고, 이민자의 복지보다 생산성 향상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동화정책이 강압성과 배타성을 갖게 된 두 번째 배경은 제1차 대전이었다. 특히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이민자와 이민자 문화에 대한 토박이 미국인의 태도가 더욱 적대적이 되었다. 그 결과가 1917년부터 1920년대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제정된 이민 제한 법률들이다.⁷⁾

미국화 운동이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개혁적 성향의

6) Dennis J. Downey, “From Americanization to Multiculturalism: Political Symbols and Struggles for Cultural Diversity in Twentieth-Century American Race Relations,” *Sociological Perspectives*, 42 (Summer 1999), p.255.

7) 이 시기 배외주의와 이민제한법들에 대해서는 박진빈, 『백색국가건설사』(서울: 엘피, 2006), 5장 참조.

학자들은 문화적 다원주의(pluralism)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문화적 다원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호레이스 켈런(Horace Kallen)은 1915년 ‘민주주의 대 멜팅팟’(1915)이라는 논문과 이후 내놓은 『미국의 문화와 민주주의(Culture and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1924)에서 동화정책의 강압성을 지적하면서 이는 건국 초부터 미국이 추구해왔던 민주주의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⁸⁾ 그는 다양한 문화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회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했다.⁹⁾ 켈런과 비슷한 시기 비슷한 논지의 논문을 내놓은 랜돌프 본(Randolph Bourne)은 미국 사회가 이민자의 다양한 문화를 지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미국은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최초의 새로운 국제적 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⁰⁾

동화의 억압성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제기된 문화적 다원주의는 사상사적으로 보면 미국 다문화주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위 두 학자들의 주장은 당대에는 별 사회적 반응을 얻지 못했다. 당시 미국 사회가 이런 주장에 호응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이민자 사이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기 보다는 미국 사회에 가능한 빨리 적응하여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절박한 문제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적(ethnic) 뿌리를 완전히 벗어던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민족적 정체성을 완고하게 고집한 것도 아니었다.¹¹⁾

이 시기 동화정책은 자신의 출신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민자에게는 다수의 횡포였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서 각종 권리를 획득하고 교육과 취업의 기회에 좀 더 유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안내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8) Horace Kallen, *Culture and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Transaction Publishers, 1970), p.69.

9) *Ibid.*, pp.124-125.

10) Randolph Bourne, “Trans-national America,” *Atlantic Monthly*, 118 (July 1916), pp.86-97.

11) Stephan F. Brumberg, *Going to America, Going to School: The Jewish Immigrant Public School Encounter in Turn-of-the-Century New York City*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6).

비롯한 유색인들은 '미국화' 정책에서 고려 대상도 되지 못했다.¹²⁾ '미국화'가 백인 이민자에게는 억압이면서 동시에 기회로 여겨졌던 것에 비해, 유색인에게 '미국화'는 자신들을 미국인의 경계 밖으로 몰아내는 팻말로 보였다. 미국 사회에서 '다양성'이라는 것이 정리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사회적 성숙과 발전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이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인종과 인종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역사적 사건들을 거쳐야 했다.

III. 세계적인 구경거리가 되었던 미국의 인종주의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 사회는 히틀러 덕분에 내부의 인종주의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제2차 대전 이후 냉전으로 접어들면서 국제 사회는 미국의 인종주의에 대해 단순히 자극하는 수준이 아니라 큰 압박을 가하는 존재가 되었다. 제2차 대전 이후 소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들은 남부 여러 주에서 시행되었던 인종 간 결혼금지법, 학교를 비롯한 공공 기구에서의 인종 분리,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해 거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살인적 린치, 투표권 박탈 등 미국 사회의 인종주의 관행을 자세히 소개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Dean Acheson)은 미국 사회내의 인종관계가 미국의 국제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국내 소수집단들에 대한 차별 행위들이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신문과 대변인들이 이 점을 계속 반복해 언급하며 우리에게 국내 현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내부의 소수집단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 여러 가지로 개선할 점이 많다... 외국인들의 질문 앞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난감해 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의심하고 분개하는 이유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국제 관계를 훨씬 잘 구축해갈 수 있을 것이다.¹³⁾

하지만 이런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 미국 정부가 우선 내놓은 방책은 문

12) Nathan Glazer, "Is Assimilation Dead?,"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30 (Nov., 1993): pp.122-136. 동화정책과 소수민족 집단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황혜성, 「다채로워진 미국 이민사 연구: '용광로'에서 탈 소수민족의식으로」 『서양사론』 93호 (2007) 참조.

13) Mary L. Dudziak, "Josephine Baker, Racial Protest, and the Cold War,"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1 (Sept. 1994), pp.543-570.

제가 가능한 붙어지지 않도록 덜어두는 것이었다. 먼저 정부는 미국의 인종관계에 대한 비판이 해외에서 전개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자이자 민권운동가인 두보이스(W. E. B. Du Bois)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우이자 가수이며 작가이기도 한 폴 로브슨(Paul Robeson)의 여권이 1950년대 초에 취소되면서 두 사람은 10년 가까이 해외로 나가지 못했다. 두 사람의 해외 활동은 미국의 인종관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출신이면서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세계적인 여성 가수 조세핀 베이커(Josephin Baker)의 경우 남미와 카리브해 등에 있는, 미국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공연을 하지 못했다. 미국의 압력으로 이들 나라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베이커는 미국에서 인종 차별 당했던 경험을 해외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미국 내의 인종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하곤 했다. 그의 그런 활동이 미국 정부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미국 정부는 온갖 외교 채널을 이용해 그의 공연을 봉쇄했다.¹⁴⁾ 아프리카계 미국인 출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던 인사들의 해외 활동을 미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탄압했던 것은 세계 정치가 ‘자유세계’와 공산주의로 나뉘던 시기에 미국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곧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냉전 시대의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미국 정부는 인종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대통령은 1946년 민권위원회(Civil Rights Commission)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는 유명한 「권리보장을 위하여(To Secure These Rights)」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처음으로 인종 분리의 사회적 관행에 반대하며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의 상임의장 월터 화이트(Walter White)는 이 보고서에 대해 “미국 정부가 내놓았던 것 중 가장 비타협적이고 특별한 선언”이라며 그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이후 대소봉쇄정책을 선언한 트루먼 독트린의 비중에 밀려 거의 실행되지 못했다. 정부 기구 중 미국 인종 관계 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대법원이었다. 대법원은 1954년 브라운 사건을 통해 교육에서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미국 인종관계의 변화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이 판결

14) *Ibid.*

문만으로 뿌리 깊은 인종주의적 관행을 바꾸지는 못했다.

IV.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민권 운동

인종 분리의 관행을 무너뜨린 것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집요한 투쟁이었다. 이들은 인종분리를 하는 버스를 타지 않았고, 인종분리를 하는 식당 안팎에서 항의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온 몸이 음식 쓰레기로 범벅되는 모욕과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인종과 관련된 관행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의 제정으로 이제 미국 백인들은 최소한 공식적이고 가시적으로는 인종 차별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상점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고객을 백인 고객과 동등하게 대해야 했고, 백인 교사와 학생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했다.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이 이끌면서 절정에 올랐던 민권운동은 무엇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미국 사회로의 동화를 추구하는 운동이었다. 노예 해방 이후 프레데릭 더글라스(Frederick Douglass), 두보이스(W. E. B. Du Bois) 등 대표적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운동은 무엇보다 미국 주류 사회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백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운동 내부에는 부커 워싱턴(Booker T. Washington)이나 마커스 가비(Marcus Garvey), 말콤 엑스(Malcom X) 등 백인 사회로의 동화 보다는 경제 문화적 자립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었고, 두보이스의 경우 1930년대에 미국 사회에 대해 크게 절망하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자발적인 인종분리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이에서 언제나 다수를 차지했던 것은 동화를 주장한 세력이었다.

킹이 이끄는 민권운동을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 사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는 시민이 되었고, 이런 성과를 통해 자신감을 확보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서는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다. 킹보다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 “블랙 파워” 혹은 “검은 것이 아름답다”는 구호를 내걸고, 미국의 인종 ‘문화’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966년 윌리 리кс(Willie Ricks)와 스토클리 카마이클(Stokely Carmichael)이 미시시피에서 “블랙 파워”를 주장하고 나섰고, 이듬해 카마이클은 찰스 해

밀턴(Charles V. Hamilton)과 함께 『블랙 파워(Black Power)』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운동의 목표를 밝혔다.

우리[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화적 테러리즘이라고 해야 하는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구해내 다시금 분명히 하는 것이다. 백인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약탈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이 사회와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는 우리 고유의 용어를 만들어낼 권리를 위해, 그리고 이런 용어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이것이 자유인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¹⁵⁾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인종적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으로는 말콤 엑스(Malcolm X)를 빼 놓을 수 없다.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콤 엑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우리가 무력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혐오감이다. 우리가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혐오감이다”라고 하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통에 대해, 아프리카의 고대 문명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

킹과 블랙 파워 운동, 혹은 킹과 말콤 엑스는 활동하던 당시에는 서로 대립하기도 했던 관계였지만 크게 볼 때 이들의 운동은 하나의 연장선 속에 있으면서 상호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킹이 이끄는 민권 운동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말콤 엑스와 블랙 파워의 주장이 진보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19세기 말 흑인 지도자 더글라스는 흑인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이야기하며 분리주의를 주장하는 경향에 대해 그것이 인종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다며 경계했다. 흑인이 백인과 평등한 인권과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고유의 독자성과 영역을 강조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관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유색인 운동의 연장선에, 즉 동화 노력의 연장선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15) Stokely Carmichael and Charles V. Hamilton, *Black Power: The Politics of Liberation* (New York: Vintage, 1967), pp.34-35.

16) Malcolm X, *Malcolm X on Afro-American History* (New York: New York Publisher, 1970), p.3, p.74.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미국 사회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종적 자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블랙 파워 운동은 다른 유색인 집단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원주민을 비롯한 여러 인종/민족이 레드 파워, 브라운 파워, 옐로우 파워 등을 내세우며 단체를 만들고 자신들의 긍정적 정체성을 세우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했다.¹⁷⁾ 이들의 운동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백인의 시각이 아닌 자신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블랙 파워 운동을 시작으로 한 이런 활동들은 유색인들의 운동이 문화 안에만 머물게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¹⁸⁾ 하지만 백인이 인구와 사회 경제 문화적 면에서 압도적 힘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유색인들에게 이런 운동은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갖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버락 오바마(Barak Obama)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10대 시절 두보이스, 엘리슨,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 등 여러 흑인 작가와 사상가의 책을 읽었지만 그 중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말콤 엑스의 책이었다고 술회했다.¹⁹⁾ 블랙 파워 운동이 문화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이슈화하는 것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집단적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점이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V. ‘제국’으로의 발전과 다문화주의

김옥동은 다문화주의는 “전지구적인 포스트식민주의를 한 나라의 문제로 축소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²⁰⁾ 앞서 제2차 대전과 냉전이 어떻게 미국의 인종관계에 압력을 가해 발전적 방향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언급했지만 냉전이든 열전이든 길게 보면 전쟁은 미국의 인종관계에 긍정적

17) 대표적 기구로는 American Indian Movement (AIM, 미국인디언운동), Manzanar Committee(일본계 미국인), Crusade for Justice (멕시코계 미국인) 등을 들 수 있다.

18) William L. Van Deburg, *New Day in Babylon: The Black Power Movement and American Culture, 1965-197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306.

19) Barack Obama, *Dreams from My Father: A Story of Race and Inheritance*, 이경식 역,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서울: 랜덤하우스, 2007), pp.162-163.

20) 김옥동, 「다문화주의의 도전과 응전」, 『미국학논집』 30 (1998), p.30.

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전쟁으로 국방 예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복지 정책이 불가피하게 축소되었다. 1960년대 존슨 대통령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위대한 사회”를 공약했지만, 베트남 전쟁이 장기화되고 물적 인적 자원과 정부 예산이 전쟁에 집중되면서 빈곤퇴치 프로그램은 크게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빈곤 비율이 높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비롯한 유색인 집단들이었다. 또한 냉전 시기에는 연방정부가 후원하는 연구비의 60퍼센트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등 군수 산업에 집중되었다. 공장 소비재 생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공장은 도심에서 교외로,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경향이 많았다. 제2차 대전 이후 비로소 대규모로 공장 노동자 직에 진출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다수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가난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단순한 하층 계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층 상승의 전망을 갖기 힘든 채 빈곤이 대를 이어 지속되는 ‘언더클래스’로 전락했다.²¹⁾

또한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전쟁이 이어졌는데, 이들은 미국의 인종주의적 전통을 상기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군인들은 베트남인들을 “남인들”이라고 부르곤 했다.²²⁾ 미군 병사들은 과병 전 교육 과정에서 베트남 문화가 미국보다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며, 적에 대한 학살을 정당화시키는 교육을 받았다. 이런 교육을 받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병사들은 미국의 인종주의가 해외에서 재생산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²³⁾ 미국이 제3세계와 벌이는 전쟁이 유발하게 되는 이런 인종주의는 최근 이라크 전쟁 동안 있었던 포로수용소에서 미국 병사들이 이라크 포로들에게 저질렀던 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전쟁 정책이 낳게 마련인 이런 인종주의를 다문화주의 교육을 통해 개선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전 세계가 쳐다보는 “언덕위의 도성”이 되었다.

21) Michael Katz, *The “Underclass” Debat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22) Eric Foner, *The Story of American Freedom*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8), 9장.

23) Peter B. Levy, “Blacks and the Vietnam War,” in D. Michael Shafter, ed., *The Legacy: Vietnam War in the American Imagination* (Boston: Beacon Press, 1990), p.214.

미국은 부초강대국으로 성장했고, 나아가 미국식 정치 경제 사회 제도와 문화와 규범을 세계의 표준으로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패권국가 되었다. 이는 다문화주의가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대내외적으로 암묵적인 차원에서라도 인종주의가 강화되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자신이 갖고 있는 패권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발휘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전 세계 다양한 문화를 상대해야 하는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는 다문화주의를 더욱 정교하게 세계적 수준에서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전쟁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적국을 비인간화하고 야만적이고 악마적인 것으로 선전해야 하는 전쟁의 속성상 인종주의는 국내외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문화주의는 이런 인종주의를 포장하는 언설에 머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돌아보면 제2차 대전, 냉전, 베트남전쟁 모두 국내 인종 문제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축소하거나 무기한 뒤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 현대 미국의 다문화주의 역시 외교정책의 족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힘들다.

VI. 다문화주의의 다면성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미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던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이 용어는 좀 더 평등한 인종관계를 지향하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유럽계 백인 남성문화와는 다른 인종/젠더/문화를 미국 문화의 일부로 인정하고, 이들 소수약자집단출신들을 좀 더 주류 사회 내로 포용해 내는 정책으로 이해되면서 비교적 광범한 지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지지를 확보하게 된 데에는 그동안 미국 역사와 문화 속에서 오래 동안 뿌리 깊게 자리잡아 왔던 인종주의, 백인유럽 중심주의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시대적 조류라고 하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글레이저는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1997)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제목에 대해, 다문화주의를 “믿고 포용하는” 맥락에서 내놓은 것이기 보다는, 내키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다문화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미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의 유행은 “결국, 만사는 변화하며, 우리도 함께 바뀌어 가는 것”임을 보

여준다는 것이다.²⁴⁾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학을 비롯한 교육과 학문계에서 소수약자집단에 대한 커리큘럼이 강화되면서 가져온 변화를 놓고 여러 학자와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 등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주로 보수적 인사들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문화주의가 미국 역사의 어두운 측면만을 부각시키면서 중요한 전통을 도외시하고, 사회적 분열과 저항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미국 역사는 인종관계가 개선되어 온 역사였는데, 다문화주의는 오히려 그 흐름에서 벗어난 것으로 유색인종들의 활동 반경을 소수집단들 내로 좁히면서 그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⁵⁾

이런 견해는 미국 다문화주의를 주로 소수 인종/민족 집단들의 자민족중심주의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장이거나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화시킨 것이다. 일부 아프리카계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아프리카중심론을 다문화주의의 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아프리카중심론은 과격파에서부터 온건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자로 구성되어 있어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크게 보면 백인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인 혹은 아프리카계의 입장에서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겠다는 운동이다. 이런 동향과 연구물들에 대해 여러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유럽중심주의와 동급에 놓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미국 역사와 미국 사회에서 인종주의와 유럽중심주의가 차지해온 비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유럽중심주의는 유럽의 역사와 문화를 보편의 자리에 놓고 다른 지역에서 유래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종을 미개하고 주변적인 존재로 억압해온 역사를 갖고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중심론은 타문화에 대해 그런 억압성을 발휘할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그 주된 의도와 관심이 아프리카인과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아프리카 후손들의 정신적 자존감의 고양에

24) 글레이저,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p.5, 57.

25) 보수적 반대자들의 스펙트럼도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쉘레진저(Schlesinger)를 들 수 있다. 쉘레진저는 인종적 긴장과 불평등이 미국적 정치 강령들을 실현해 나가고, 국가 정체성을 발휘하는 속에서 점차 해결되어 왔으나, 다문화주의는 그런 흐름으로부터의 이탈로 미국의 분열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Arthur M. Jr., Schlesinger, *The Disuniting of America: Reflections on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W.W. Norton & Compay, 1998).

집중되어 있다. 미국 다문화주의의 특징은 다양한 인종/민족집단이 배타적인 문화적 틀을 형성해내는 원심력에 있기 보다는 다양한 인종/민족/젠더 집단들을 미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포용해내려는, 혹은 동화시켜내려는 강한 구심력에 있다.

미국 다문화주의가 보수적 입장을 가진 이들로부터만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진보적 입장의 학자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은 미국이 다문화주의 사회가 아니며 백인 중산층 중심적인 사회, 혹은 소비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를 쉽게 말하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백인 중산층과 기업이 갖는 지배력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러셀 자코비(Russell Jacoby)는 미국 문화는 소비문화로 통일되어 있으며 다문화주의는 가면에 불과하다고 일갈한다.²⁶⁾ 다문화주의라는 용어에 있는 그 ‘문화’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 집단들 사이의 사회 경제 문화적 힘의 차이가 간과되거나, 중요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은폐되고 있다고 하는 주장도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²⁷⁾

미국의 인종관계와 다문화주의를 다룰 때 분명히 확인해 둘 것은 미국은 우선 인구면에서 보더라도 백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회라는 점이다. 최근 언론들은 미국 백인 인구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라틴계 비율의 증가로 2050년이 되면 백인 인구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사회학자 리처드 알바(Richard Alba)는 2050년에도 지금의 인종분류가 유효할 것이라고는 전망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의 구분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고 말한다. 대신 그는 좀 더 가까운 2025년까지 정도가 지금의 인종구분으로 전망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하면서, 1995년까지의 추세를 갖고 2025년을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백인 인구비율은 74퍼센트에서 62퍼센트로 감소할 것이며, 아시아계는 3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라틴계는 10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아프리카계는 소수 인종 집단 중 가장 큰 인구 집단의 지위를 라틴계에 넘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다수인 백인 인구비율은 일정하게 감소하겠지만 그래도 주류집단의

26) Russell Jacoby, "The Myth of Multiculturalism," *New Left Review*, 208 (1994), pp.121-126.

27) Van Deburg, *New Day in Babylon*.

지위를 내줄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²⁸⁾

인구 면에서 만이 아니라 경제력의 측면까지 고려하면 미국 사회에서 백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센서스국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흑인의 개인 실질 소득은 백인의 61.5퍼센트이다. 빈곤선 이하의 인구 비율도 백인의 경우 8.7퍼센트인 것에 비해, 흑인은 24.7퍼센트에 달한다.²⁹⁾ 재산 차이는 소득 차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백인에 대한 흑인의 개인별 순자산 비율은 1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³⁰⁾

존 하이햄(John Higham)은 다문화주의가 “인종과 젠더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며, 계급 의식은 종속과 저항의 자극적인 향기를 둘 때에만 슬쩍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³¹⁾ 이는 중요한 지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비판이 지난 반세기 동안 활발하게 진행된 인종과 젠더 논의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종과 젠더에 대한 오랜 논의를 통해 사회적 시야의 지평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계급적 불평등이 인종과 젠더의 구분선을 타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도 잘 보여주었다. 인종, 젠더, 계급이라는 범주들은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 구분선을 서로 강화시키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폐하는 기능도 해왔다. 따라서 계급에 대한 논의를 강화시키는 것은 계급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전통 마르크스주의적 방식으로서의 회귀가 아니라, 계급, 인종, 젠더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 혹은 극복해가고 있는가를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망이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학술 세계에서 인종과 젠더에 대한 논의는 계급과 무관하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지만, 미국 현실 사회에

28) Richard Alba, “Immigration and the American Realities of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ism,” *Sociological Forum*, 14 (1999), pp.4-5.

29) <http://www.census.gov/prod/2006pubs/p60-231.pdf> (검색일: 2009년 11월 15일).

30) <http://www.stateofworkingamerica.org/swa06-ch05-wealth.pdf> (검색일: 2009년 11월 15일).

31) John Higham, “Multiculturalism and Universalism: A History and Critique,” *American Quarterly*, 45 (June 1993), pp.195-219 중 p.202. 하이햄이 이 논문 전반에서 계급적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이 논문은 다문화주의가 미국사 전체를 엮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서 다문화주의는 주로 교육과 문화 영역에 머물러 있었으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이 베트남 전쟁에 밀려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래 거의 이슈화되지 못했다. 얼마 전 미국과 한국 언론에서 미국 여성 소득이 남성의 77퍼센트까지 상승했다는 내용이 다루어진바 있지만, 이를 다룬 여러 기사들을 살펴봐도 그 수치에서 읽을 수 있는 이제까지의 불평등과 여전히 온존하는 불평등을 문제로 삼은 것은 거의 없었다. 이를 다룬 기사들은 한결같이 여성의 높아진 소비력에 주목했다. 기업의 입장에서 수치를 읽어낸 것이다.³²⁾ 최근 미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에 가장 적극적인 이들은 인종/젠더 관계를 좀 더 평등한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이들이기 보다는 기업이다. 기업에게 다문화주의는 마케팅과 노동자 관리에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³³⁾ 기업이 다문화주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다문화주의의 의미는 기존의 불평등한 인종/젠더 관계를 극복하고, 좀 더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진보적이고 개혁적 의미로 사용되기 보다는 다양한 소비 취향이나 생활 스타일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20세기 초 동화정책이 처음에는 사회 개혁가들이 이민자들의 복지를 고려해 시작했던 운동이었다가 기업이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적극 개입하고, 제1차 대전으로 외국 문화에 대한 불신감이 강화되면서 배타적이고 강압적 성격을 띠게 되었던 역사를 상기시킨다.³⁴⁾

VII. 결론

다문화주의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인종주의, 백인중심주의이지만, 미국 다문화주의가 딛고 있는 현실에서는 유럽계 백인 중산층 문화가 확고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다. ‘용광로’라는 표현의 인기가 없어졌다고 해서 미국 사회가 이민자들을 동화 혹은 미국화시키는 능력과 제도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은 기꺼이 미국 문화를 받아들여 동화되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32)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9/09/17/0619000000AKR20090917060600075.HTML> (2009년 11월 15일 검색).

33) 이에 대한 선구적 연구로는 David Rieff, “Multiculturalism’s Silent Partner,” *Harper’s Magazine*, (August 1993), pp.62-72와 Chicago Cultural Studies Group, “Critical Multiculturalism,” in D. T. Goldberg, ed., *Multiculturalism: A Critical Reader* (Cambridge: Wiley-Blackwell, 1994), pp.114-39. 참조.

34) Downey, “From Americanization to Multiculturalism,” 참조.

들이 대부분이다. 미국 다문화주의는 백인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았고, 미국 사회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상호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향성을 갖게 해주었다. 이는 다문화주의의 중요한 업적이다. 인종 사이의 서열을 당연시하는 사회와, 인종 사이의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는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문화적 배경, 혹은 다른 인종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규범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인종들 사이의 경제 사회적 격차가 크게 벌어질 때 그런 교육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다. 인종과 문화에 대한 통념은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을 통해서도 형성되기 때문이다.

근대 자유주의의 원리는 인종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개인은 피부색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타고난 재능과 노력에 따라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 근대 자유주의의 원리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타고난 인종이나 젠더, 계급이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삶의 범위를 결정하는 무게가 아직도 만만치 않다. 최근 미국 사회는 흑인 대통령과 여성 국무장관들을 배출하면서 비주류집단 출신의 개인들이 이룬 성취를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이들의 이런 성취는 많은 유색인과 여성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이들의 성취 역시 개인의 재능과 노력 뿐 아니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여성이 평등한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 실천해왔던 집단적 운동의 결과라는 점이다. 미국에서 다문화주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민족 집단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들이 집단적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개혁적 기능을 해 왔다. 민권 운동 이후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학, 기업, 정부 기관 등 미국 사회 여러 분야로 더 다양한 인종/민족/젠더 출신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방송이나 교육, 학문 등 여러 문화 분야에서 소수 집단의 역사와 업적이 공식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사회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경계하는 보수 세력의 견제 속에 그 담론과 실천은 정치 경제적 차원의 문제제기와 재분배 정책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고, 주로 ‘문화’와 교육, 학문의 테두리 내에 머물러 왔다. 다문화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기초는 1960년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위기가 충만했던 가

운데 마련되었지만, 그 본격적인 진행은 미국 사회가 보수화되었던 1970년대와 80년대에 전개되었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다문화주의 담론을 ‘문화’에 머무르게 하는데 일조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다문화주의의 실용화에 가장 적극적인 주체로 등장하면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의미 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세련된 문화적 태도를 뜻하는 유행어로 상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진보적 논자들이 ‘다문화주의’에 회의적인 글을 쏟아내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통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다문화주의’는 구체적인 성과를 쌓아가기도 전에 그 용어가 갖고 있는 개혁적 진보적 성격을 점차 상실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대외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텍사스 주 포트 후드 기지에서 있었던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이라크 파병을 앞둔 요르단 출신의 이슬람교도 미국인이었다는 점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치부하고 넘기기 어려운 여운을 남긴다.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은 폭력배들의 무덤 위에 잡초들이 우거지고, 또 그 위로 고층 빌딩 군이 들어서는 장면들이 겹쳐지면서 막을 내린다. 무지막지한 집단 폭력의 시대는 땅 속에 묻히고 그 위로 좀 더 세련된 시대가 세워졌다는 것을, 혹은 거꾸로 읽으면 현대 미국 문명의 아래에는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감독은 말하고 싶은 것이다. 현대 미국의 다문화주의 담론이 한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와 집단이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알게 모르게 온존하고 있는 인종주의와 날로 커지는 빈부격차, 그리고 계속되는 전쟁의 현실을 가리는 그럴듯한 포장지에 머무를 것인가는 이 시대 미국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Abstract>

A Historical Background of American Multiculturalism

Jaemin Choi(Seoul National University)

For a long time, America was regarded as a white men's country. Even though native Americans and African Americans have resided as long as whites in the United States, they were not esteemed as fellow citizens by whites until the World War II. Through the World War II, the Cold War and the Civil Rights Movement, racism, racial practices, and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United States suffered great change. It was the beginning of multiculturalism in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points three features of American multiculturalism. First, the most important driving force of American multiculturalism came from the civil rights movement. Therefore, the opposition of the American multiculturalism is racism and Eurocentrism not assimilation.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has been pursued by colored people as a way to be equal citizen with whites and a procedure to make a social and economic advancement. Historically, the assimilation has paved way for the multiculturalism in the United States.

Second, American multiculturalism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ociety. The World War II and the Cold War stimulated white Americans to reflect their own racism. And a hostile foreign policy or a war against a specific country could be a barrier to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ism which seek to friendly relationship among various groups with different racial/national or cultural backgrounds.

Third,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hegemony of white middle class has kept going on with the rising of multiculturalism discourses. The centrifugal power of multiculturalism developed with the strong centripetal force of white middle class.

Multiculturalism has changed the norms and ideals relating with race in the United States. Multiculturalism has encouraged racial/national minorities and women to have more confidence and self-pride. But these histori-

cal social background of multiculturalism is rarely mentioned and almost forgotten. As for the multiculturalism, it has different meanings according to the debaters. Some conservatives consider the multiculturalism as a kind of ethnocentrism that could be a harm to the unity of the country. Some radicals think that multiculturalism hides the unequal situation and avoids to face th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ese days, the most steady and ardent advocates are the corporations. With them, multiculturalism increasingly represents various life styles or tastes according to racial/national or gender difference, not social or economic inequality. The meaning of multiculturalism is changing, which is dependent on the racial relations, foreign policies, business marketing strategies,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키워드

다문화주의, 인종주의, 동화정책, 블랙파워, 아프리카중심론

Key Words

Multiculturalism, Racism, Integration, Black Power, Afrocentric

e-mail: jnchoi23@hotmail.com